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八面

編輯兼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崔○龍
發行所 朝鮮日報社

仁川

染料製造業
鮮興洋行의活躍

白衣人으로象徵되는朝鮮人이지만 이白衣人의朝鮮人도 每年莫大한染料를國外로부터輸入하고잇다 생아니라우리는經濟關係로보든지 生活改善의一方으로보든지 染料의需要가增加되기를 希望할수밧게업고 同時에우리손으로 染料製造를始作하도록하여야될것이다

仁川府花平里鮮興洋行金興洙君은이에着目하야前記洋行을創設하고十三年九月부터染料業을開始하엿는데職工은僅히五大人에지나지못하며一日生產高는二十五圓一個年生產高는大千七百餘圓에지나지못하는小規模의工場이나品質良好와經濟無比의特徵을有한染料임으로昨年은例年보다그販路가만히擴張되야黃海平安、江原、京畿、忠淸一帶에販路가擴張되엿스며 그外特約店이五個所라한다仁川에서製造되는染料의一個年總產額十七萬五千圓에比하면足히探算의餘地도업스며從하야他人의經營하는十七萬餘圓의產出을對抗할可能도업스나 그러나同洋行의方針은薄利多賣를唯一의生命으로알뿐아니라原料品은獨逸品을直輸入하야適當한吸收藥劑를加入製造하며『검정』『灰色』『바름』等과如한染料는鹽分을適當히混入하야調製하기때문에色調鮮明하고永久不變하야所謂水晶票가朝日票에少毫도遜色이업슴으로需用者의好評을밧는터인데朝鮮產業界를爲하야盡瘁努力하는金君은更히一步를進하야大規模로工場을建設하고業務를擴張할計劃이라한다(仁川)

謹賀新年

扶安郡保安面 會計員 邊東沃

扶安郡山內面石浦里 來蘇寺住持 都明詰 朴應連 外一同

全北茁浦港朝鮮日報 支局長兼記者 辛丙烈 總務兼記者 辛翰承 電話一六番通用

全北茁浦港 郵便所長 重本寅一

茁浦庚申青年會

全北茁浦港江西町 學務委員 面協議員 金同俊

乾先面巴山里 面協議員 李鉉午 面協議員 具容書

茁浦衡平分社

全北茁浦港浦江東町 學務委員 殷成大

學務委員 司法代書人 金洪燦

茁浦港市場町 米穀肥料製油販賣 茁浦商會 學務委員 金龍均 電話一六番

茁浦運輸組合 電話八番

茁浦勞働組合 電話二七番通用

全北茁浦江東町 고무靴染料商 梁在業商店

고무靴專門商 三興商店 主 金興三

宗盛自轉車舖 主 郭宗鎭 電話二八番通用

東亞洋服店 電話二八番通用

裁縫業 金卿合商店

財物及米穀小賣商 梁得用商店

裁縫及學生服製造業 徐文燮商店

全北扶安郡 乾先面事務所一同 電話二四番

茁浦警察署一同 電話四番

茁浦公立普通學校 校長 高橋裕民 訓導 村松祐淳 金永培 金永德 訓導 宗ミカ 朴基煥 林井來 電話一四番

朝鮮總督府殖產局 山林課扶安出張所 電話三一番

全北茁浦港南山町 茁浦精米所 電話一二番

001567

全北茁浦港新興町 朝日料理 長春旅館 主 金漢偉 金漢永 電話二二番

生理髮館 主 辛錫根

書籍文房具 化粧品 洋襪組 電燈 仁盛商會 販賣部

大昌洋靴店 主 [illegible]

고무靴專門商 光興商店 主 李光秀

扶安郡山內面鎭西里 尹容求

光州不動町 雜貨商 朴麟錫

光州南門通 大阪고무 各種고무靴 人蔘 雜貨都賣 朴東春

光州楊林里 南鮮種畜場 羅駿集

光州須奇屋町 高在興

光州花園町 개량쟁기製造 光山鐵工所 主 金宗植

扶安郡保安面富谷里 許準烈

光州瑞南里 姜雲燮

康津郡鵲川面 房榮潮

光州北城町 石版印刷部 英文堂

和順同福面 職員一同

京仁線素砂驛前 穀物精米商 素砂精米所 張壬淳 韓益善

安興驛前 安興理髮館 辛[illegible]

金浦郡陽西面長 崔秉奎

喪中欠禮 乾先面巴山里 面協議員 金判浩

社說

世界는果然 平穩할가?

樂觀은皮相의觀察

一

權力에依한 社會의『秩序維持』가 한갈등行되는現下朝鮮의事態에關하야 吾人은略說한바잇섯다 그리고이人爲的의小康이 어떠케持續될것을勿論하고社會의裏面 人心의속속드리로흘러가는바思想의激流는 依然하야變함이업슴을論하엿섯나 이러한現象은 다만朝鮮에만局限된것이아니오 一般으로安全을保障하게되엿든世界列國의 共通한現象이되는것이다 新年劈頭에 곳國으로부터集中되는消息은 곳이러한結論을歸納케하야餘蘊이업다할것이다 一九二六年의世界는果然平穩할가 或은또平穩한皮相의現象과는正反對로 그人類史上容易치아니한洪水를오게할險惡한暗流가 社會의裏面으로감돌어나아갈것인가? 이는世態人事에留意하는者 一刻이라도等閑이너길수업는 緊切한問題이다

二

物理界의現象으로써 倫理界人類社會의未來를象徵하는무엇과가티自信하는것은 二十世紀오늘날에 매우 뒤써러진非科學的인思想이다 그러나暴風洪水 地震 및建築物의崩壞等으로 多數한村落의敗滅및人命의死傷을傳하는歐米各國의 歲末및歲初의不祥事의續出은 또한돈고보는者로 어떠한神妙한預感을가지게하지는안는가? 그러나만일이것이 非科學的인感傷이라할진대 그는곳長說코저안는다 그러나聖誕期節과및新年의氣分中에一時無事한列國의政情은全然히平穩함을持續할수잇슬가? 表面平穩한世界의政情은 未來의大爆發을前兆하는火山地震의 殷殷한微動을닐으킴과類似한바는아닌가? 吾人은全혀樂觀할수업는바이다

三

昨年一年동안左黨反逆의最大한騷動을닐으킨곳은『벨칸』의一小國『불가리아』이엇섯다 이로因하야자못一世의耳目을놀랜바잇섯스나 『벨칸』의一小國에서一大叛亂을보앗다는것은 要컨대歷史進展의 一小支流인者이라그로써世界의大局을 움즉이기에는不足하다 海外의出兵을排擊한佛國의共産派의騷動도또한精大한支流인者이다 『불가리아』土耳其等諸國의關係에刺戟되어『벨칸』에서의最大한陸軍과『에지안』海上의稱霸하는海軍을가질것을자랑하는貧弱한希臘人의發憤도要컨대또한世界史上一小開位를차지하는者이다 만일또吾人이매양力說하는被壓國의劣弱國民들의叛逆運動도 또한歷史發展의正經을따르는細細한緯線일것이다 그는階級的運動이나 民族的運動임을勿論하고 모다小劇한傍系的인者인것은否認할수업는事實인外닭이다 그리고이支流的緯線的인者는 오즉그主潮와및正經인者의能動的인變動을기다려서 비롯오그의含蓄한歷史的使命을다할수잇는바이다

四

現下의世界에三大勢力의脉系가잇스니 大英帝國의世界的舖政 米合衆國의新興한經濟的侵略및『소베트』露國의赤色聯合이것이다 英帝國의存在가 積極的으로世界의禍亂을促成할時代는 이미過去에屬하엿다 그는차라리現狀維持로서 그自體의存續을汲汲히하는者이다 오즉武盆의剩餘를주장하는米國의資本的軍國化와 資本化와및分裂의消息으로써 新天地에의保守主義者들을安心케하는『쏘베트』露國의兩大勢力은 依然히相對的의擴張의 兩大根源 잇는것이나 그는南國의支配階級들의意識的欲求가 어데잇슴을不計하고 그의世界的現狀破壞의勢力은 가장主觀的 正統的偉大한主動力을 지을수잇는까닭이다 그리고그의靜的狀態의持續이얼마동안이될는지 不計하고 그는곳禍因의積的增長을意味하는者이다

五

米國의軍國化는 그들의主張하는平和論이어떠니否든것을不計하고 必然으로 一大禍因이되는것이다 兵은凶器이다 그를無人의曠野에서허두더라도오히려不如의災變을 想像할수잇거든하물며世界第一의實現코저하는體制的의大國民의偉大한組織體의掌中에잇서랴? 그리고그들로資本의剩餘를 慨嘆하야 그의適當한處置法을 講究하야말지안는바에랴? 昨年以來一時平凡한局面이로든 日米의關係는 世人의못그險惡한潮流를大部이나 하젓스나 반드시이日米에局限하지말고 軍國化한米國의東方의進出은 곳太平洋의西岸으로하여금 平和를永續케하는 瑞光로는볼수업나 그리고더욱히資本化하다는『쏘베트』露國의新傾向은『沙資本』이라는 傳統的語意에가려어서列國資本主義支配階級들의 歡喜할理由가 되지안홀줄을斷言하는바이다 그는無産者의獨裁權을確保하는『쏘베트』露國의經濟的方策은 곳그의勢力의『다음의時代에의準備』를意味하는바이라기를오즉一時共産主義時代에옴겨노든가함으로서 큰적이空課를 樂觀을 試하는바아니다 吾人은世界 拘束으로써人爲的平穩을자랑하는 列國의支配階級들이바야흐로安堵의念을安全히하려하는때에 世界 不 의靜的增長을 指摘하려한다 樂觀은 皮相的觀察이다 아니吾人은비로소 發 되는世局을 樂觀할수잇다

馮氏의下野決行

歐洲諸國을經하야

◇…日本에向할豫定

(東京發來國着電) 馮玉祥氏는二日에下野의通電을發하고四日張家口를出發하엿는데目的은庫倫을經하야莫斯科에出하엿다가獨逸佛伊諸國을巡遊하고日本으로向하리라는바 一미五十萬元의旅費를準備하엿슬뿐아니라 從者도五六名이잇다하며自動車로爲先庫倫에向하리라더라

言行不一한張作霖

下野를言明하고

◇……實行을逡巡中이다

(奉天六日發) 張作霖은郭의背反當時 郭이賣國奴라嘲弄하엿다는理由로昨年末에下野할旨를 言明은하엿스나一向此를履行치안코逡巡하는中이더라

魏益三의歸順을

張作霖氏가勸說中

(奉天六日發) 張作霖은馮의下野와國民軍內部의內訌을見하고山海關에在한魏益三을歸順케하고자郭의軍長이엇던劉緯를同地에派遣하야孤立無援인것을勸說하는中임으로一兩日中에完全히歸順하리라看做하는듯하더라

日、露의衝突說은

虛傳에不過하다否認

露人民委員長「스」氏의演說

(東京電) 莫斯科에서客臘廿八日에開會된共產黨大會에서人民委員長『스타린』氏는其演說中에左와如히言明하엿다더라 歐洲方面에서는中國의革命을煽動하는者는露西亞인데又日本도中國을自己의努力圈내에너흐라고努力한다稱하야將來日露兩國의衝突이有하리라고思하는中이나露國은現時中國에在한民衆運動은米國建國前과酷似한것으로看做하야同情을表하며日本도露西亞의同情을諒解할터이즉日露衝突說은一種의虛傳에不過하다

獨、米製鋼會社

合同準備中

(나우엔四日發無電) 米國新聞紙의報道에依하면獨米兩國의製鋼會社는目下合同을準備中인데此等會社는年產額一千四百萬噸을製產할수잇는것이다右發起人代表는『크리—트·리드』氏가되엿는데氏는最近『모두칸』의十億弗銀行合併을 行하고 且過般은『포—드』自動車會社를買收하엿다더라

胃癌新療法을

佛國博士가發表

(뽈도五日發) 佛蘭西醫學博士『라루—소바—루』氏는胃癌의新療法을發表하엿는데此는『라듸오』의放射를利用하는것이라더라

京畿道青年聯盟

‖創立準備委員會組織

統一的組織大方針下에서

去二日仁川府共和春에開催한十四團體聯席會에서京畿道青年聯盟發起를決議하는同時準備委員七人을選擧하엿다함은既報한바어니와同準備委員들은即時準備委員會를開催하고急轉하는時勢에따라우리運動을混亂에서統一로氣分에서組織으로統制코저第一郡聯盟은區及面青年會單位로第二道聯盟은郡聯盟單位로서組織하자는大方針下에서京畿道青年聯盟創立準備會를組織하고左記事項을決議하엿다더라

◇決議

一、參加資格은京畿道內府郡青年聯盟으로함 但郡青年聯盟이아즉組織되지아니한곳은그郡內青年聯盟期成會를組織하야參加케할일

一、京畿道內에公文又는出張으로郡聯盟組織에努力할일

一、創立期間內經費는發起團體에서負擔하기로함

一、創立期間內一切의事務執行은仁川青年聯盟에게 任할일

一、事務所는仁川青年聯盟內에置할일

一、參加時日과創立月日及場所는追後發表하기로함 (仁川)

新興農民會

創立總會禁止

慶北安東郡豐南面河回를中心으로그附近에散在한無產階級들은살기爲하여團結하야絕對하고勢議團體를發起한바其基礎의完成을圖謀케하기爲하야創立總會開催를準備中이던바去二月八日頃安東警察署에서는發起人中柳晩植氏를불너 只今 우리安東에잇는思想團體의集會는絕對로禁止하는터이니貴會의發起한會도集會 못한다고말함으로發起人들은强硬히質問하얏스나結局延期되고말엇다는데一般은當局者의壓迫的行動에 매우憤慨한다더라 (河回)

大盛況의

金海女夜學

慶南金海青年會에서經營하는女子夜學會는創立한지七年이되야비로소그모든內部가漸漸充實함에따라學生의學力을世間에表示키爲하야去大晦日에學藝會를開催하엿는바 觀客은五六百人의多數를算하엿스며同日學藝會를一同學藝會及歌劇會를準備하야入場者로會場은立錐의餘地가업게되엿다는데二十種의學藝는其卓越한進步에 驚嘆하얏스며寄附金額도多數이엇다더라 (金海)

金地區青年會에서 許事金在國外九人音樂手若干人(益山)

農軍會創立과

三夜學並設

咸南永興郡順寧面內新亭里南兩里住民은農軍會라는農民團體를去二十四日에創立하고諸委員의努力으로 村開拓의端緖로農民教育을普及키爲하야三個所의夜學을開催한바 生徒가벌서八十名以上이오先生은禹義治許貞舜陳成大禹濤燮四氏며同會執行委員은如左하다고 許得斧 許命院 張錫鍾 禹日燮外三人(永興)

都上里青年

音樂隊組織

咸南豐山郡熊耳都上里有志青年들은多年間苦心하던結果去十二月十八日同里東和親睦會館內에서隊員五十一名이出席하야音樂隊創立總會를開催하고隊則通過와諸般事項을討議한後役員을選擧하얏는데其氏名은如左하다 隊長崔秉希 副隊長吳秉國 總務

倒荷殺人

咸南豐山郡里仁面廣里에居住하는趙 鉉(四)은同郡安水面 里에居住하는 鍾闇二等道路에서搬業을하든바本月三日에豐山邑에서騎하야北行하던中邑內에서十五町許隊牛橋附近에서自己馬車가기우러짐을救코자하다가荷物에 車에 頭部되야無慘히壓死되엿다더라(豐山)

間島의

巡回音樂講演

間島龍井醫學會에서는農村啓蒙의目的으로써 樂隊演劇을組織하야間島各地를巡回코저昨年十二月二十八日龍井을出發한바期間은大略一個月豫定이며演士의氏名은如左하다더라

◇演士 李周和 李鍾英 李秉錫 朴斗南 金釆龍 鄭成基 呂南蘠 金勝鉉 林鍾浩 金周贊(間島)

◇無產青年會舘落成 金化郡通口面鶯幕里無產青年會에서는會舘이업슴을遺憾으로하야去八日부터會長南廷漢氏主催로會舘十餘間을新建築中이든바去十一月에竣工되여同會舘에서落成式을盛大히擧行하엿다더라(金化)

雲集한罷業牛車

儼然한轅門轍城

蔚山牛車罷業續報

川辻等은벌서降旗樹立

去二日蔚山牛車組合에서臨時總會를열고荷主中嶽商李圭正氏의賃金低下와組員이아니고此에從役하는牛車軍과日人富豪로釜山에居住하는大池가經營하는長生浦山中回漕部에서貨物自動車를購入하야賃金을低下運搬함을因하야一般組合員生活上莫大한迫害를被하게됨으로同盟罷業을斷行하기로決議하고實行上關係로執行委員外지選擧하엿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組合長朴秉鎬氏는事情에依하야參席치못하고副組合長孫楨秀氏와幹事朴君五氏와選擧된執行委員十一人이同日午後七時에委員會를開催하고實行上方法을討議한決果去三日에各處에同盟罷業宣傳廣告를貼付하고一方警察當局에理由를述한後爲先一般組合員에게牛車를停車場前崙中에集合케하야벌서四十餘臺가集合되엿다는데問題이든日人川辻은謝過하고組合許議員韓順敏은始末書를쓰고其他穀商及山中回漕部大池等은大打擊을맛는中議論이매우區區하다는데山中回漕部에서貨物自働車를廢지아니하면山中回漕部貨物은運搬치아니할것外지또決議되엿다더라(蔚山)

順寧青聯

去二日創立

咸南永興郡順寧面各里青年團體로서面青年聯盟을組織코자順寧青年會發起로數月前부터準備中이던바去二日當地私立昌松學校內에서十二團體參加로順寧青年聯盟을創立하고左記事項을討議한後萬歲三唱으로閉會하얏는데 常務執行委員과綱領은如左하더라

◇綱領(略)

◇決議

一、衡平運動을後援할일

一、參加團體는반드시勞働夜學을開催케하고此를後援할일

一、普天敎는積極的으로撲滅할일

一、內容不良한舊式契會와在來書堂을撲滅할일

一、賭博團이有한時는此를警告할일

一、迷信을打破할일

◇常務執行委員 張秋翼 成宗厚 張赤波 李鍾九 金浩榮(永興)

錦山青年臨總

全北錦山郡內에在한錦山青年會에서는去四日緊急臨時總會를開하야一大革新을圖하엿는데決議事項은如左하다더라(錦山)

◇決議

一、全員年齡 制限은 三十五歲(計算年齡)로限度할일

一、會長制를委員制로變更할일

一、前會費及捐助金은前年末의分外지全部免除하고今年一月分부터徵收할일

一、自今一年以上會費를滯納할時는除名할일

一、少年部를增置할일

一、學舘維持의件에關하야는今月中에在한定期總會로延期함

一、無用文簿는審查委員이一次

審査後燒印與否를決定할일 (以下略)

會寧에開催된

咸北記者大會

全國地方記者大會開催決議

去十二月二十五日咸北會寧에서는咸北記者大會가開催되야祝電朗讀經過報告와綱領及規則修正委任과委員改選을行한後閉會하고翌二十六日繼續開會하야左記各項을決議한後記念撮影으로써閉會하얏다더라

◇決議

一、本團事務所位置에關한件

一、綱領及規則修正에關한件

一、今後進行方針에關한件

一、全鮮地方記者大會를京城에開催케할것

一、經濟調査에關한件

一、言論權威에關한件

一、言論侵害에關한件

一、地方通信에關한件

一、農村事況調查에關한件

一、言論機關과大衆運動에關한件

一、言論機關統一에關한件

一、本社와支分局待遇에關한件(會寧)

東萊에서

革波會創立

東萊新進青年幾人은社會思想을研究코저去四日市內李賢舜女史家에서革波會를組織하엿다는데幹部의氏名은如左하다더라

庶務部 朴文燦 兪守濬 研究部 金哲圭 吳宗植 圖書部 金容圭 金仁浩(東萊)

元山青年同盟

緊急會決議

元山青年同盟에서는去五日에元山府上里二洞同會舘에서緊急委員會를開하고左記三項을決議하엿다더라

◇決 議

一、本同盟에加入한元山青年會 籍取消에對한件

一、某名下에서私的偏袒을爲하는者에對한件

一、咸南青年運動에協同盡力할事(元山)

◇漢村間島講演 北間島頭道溝市에서昨年十二月二十一日當地朝鮮人居留民會及頭道溝青年會 後援으로漢村事業 努力하자는問題로青年會舘內에서講演會를開催하야 永武氏의長時間講演과其他의感想談에聽衆은三百人에至하야大盛況을일우엇다더라

새해를마즈면서

十四字 五十行 以內 住所氏名 明記

◇시도가고 날도가며 해도간다 우숨기도하고 울고도십고 괴로도나고 한숨도나오고 노래도나오고 슬흐기도하고 깃거웁기도하고 캄캄한것도잇고 명랑한것도잇다

◇우숨도 울음도 힘도괴운도 한숨도 노래도 슬흠도 깃거움도 캄캄도 명랑도필자는이모든苦樂을혼자맛보는것갓다 아니누구나다ㅣ가티당하리라

◇해마다 해마다 늘잇엄는설날 맛! 우리 게는금ㅣ설가 리不平、不滿、憂愁、한숨、걱정 근심모든悲哀가交集하는해는별노업슬것이다

◇六十甲子乙丑은풍년들줄알고눈이빠지도록 손목이붓도록 밤을이젓처지도록 한업시애를써왓스나 結局旱災、風災、虫災、水災、災殃이라는災殃은모조리애어노치안코각각으로 苦痛을當한해속한얼굴과衰瘦한몸덩이를움키쥐고 乙丑의새해를마즐때 眞實로그의所望이얼마나컷스며참으로그얼마나무거운짐을지여노앗섯는지 새삼스러히말할것도업섯다

◇부실한乙丑은미련한乙丑은 우리에게 깃거움은커녕오히려 二重三重의한만은재앙 온갓쓰림만더주엇슬따름이요 貧弱한몸에는 입을것도먹을것도ㅣ지업시모도다업서지고 오즉굶주린창자를움켜쥐고呻吟하는소리를지르게되엿스며영을두다리게되엿슬뿐이다

◇아ㅣ소리는점점더요란하게나온다 터크게둥난사 또는원수가큰세상을등지고떠날이에나고만다 그수효가실로얼마나되나요? 한만은乙丑年아ㅣ그러나 그러나거긔에는닙업는禿木과기동업는주추돌과 玲瓏한彩色에새운ㅣ넷 材가時機를기다리며 孤寂히이곳저곳에 흣허져누어잇슴을볼수잇다

◇그럼으로苦痛만흔乙丑을보내면서希望만은丙寅을마즈라고願하지아니치 못하겟다 잘變하여라化하여라丙寅아 義는 으로弱은强으로 苦를樂으로

(長湍院 雲)

印工親睦創立

二日井邑에서

全北井邑邑內에서는印刷職工二十餘人이去二日에同邑城里永昌家에서井邑印刷職工親睦會創立總會를하고會體는委員制로할것을決定한後會則修正과勞働集과會費收捧과會務處理에對한諸般事項을 可決하엿는데當選委員은左와如하다더라 李相大 金在遠 李炳錦 殷熙(井邑)

海州青年懇談

海州青年會에서는去二日南本町大正館에서新年會를開하고昨年一年의黃海道一般社會運動의狀況과朝鮮青年運動의將來問題에對한懇談이잇섯으며同會의新年事業으로決議된事項은

一、臨時會舘을修理하되爲先卽席에出席한會員으로부터義捐을醵出한바總額이八十三圓

二、黃海道青年雄辯大會를一月以內에開催하기로하고一切準備는委員會에一任하기로하얏다더라(海州)

三省會臨總

慶北 義城

三省會臨時總會를去十二月三十一日同會館內에서開催하고巡廻寫眞報告及會計報告가有한後에會書를購入하야一般에無料觀覽하기로決議되고月刊雜誌出版의件에對하야는次月號부터出版하기로하되警察當局에交涉委員吳相鎬、金潤培兩君이選擧되고北風會나青總이나加盟의件은任員會에一任하얏다고(義城)

元山青聯臨總

元山青年會에서는去三日元山第一公普校內에서臨時總會를開하엿섯는바委員長南忠熙氏外六人의脫會願으로長時間討議한結果南氏以外六人은元山青年會會員或은委員임에도不拘하고元山青年同盟을組織함은元山青年運動을攪亂하는것이라하야除名하기로한바그에對한決議及其他重要한決議事項은如左하더라

◇決議(槪略)

一、脫會願提出한六人除名의件

一、元山青年同盟에關한件

一、本會代理部에對한南忠熙氏宣言에關한件

一、南鮮日報元山支局은本會日로부터直營할것

一、憲章修正에關한件

一、元山青年聯合會에加盟할것

一、咸南青年聯盟에加盟할것

◇補缺及增選委員 李宗敏 安鍾駿 尹致赫 李在睿 申宇均 金鍾國 張基郁 金越星 韓明濂 朴蕃爀

◇憲章修正委員 金相鵬 尹致赫 宋基俊 朴泰善 張基郁(元山)

씩씩修養少年團

去一日馬山勞働夜學校內에三十餘名少年이모혀丙寅의新年마즘으로猛虎가튼勇氣로써少年事業을씩씩하게하자는精神으로馬山씩씩修養少年團을創立하엿다는데選擧된委員은左와如하다더라

◇委員 團長金桐潤 文藝部李太圭 總務部王庠壽 體育部曹楨鎬(馬山)

火星會一週紀念

慶北安東郡火星會는創立以來로一週間이나一般民衆運動에만흔貢獻이잇섯는데本月八日該會創立一週年임으로同會에서는此를紀念키爲하야當日下午三時該會舘에서盛大한紀念式을擧行한다는데會員은勿論遠近各地에在한團體와個人을勿論하고多數來參하기를바란다더라(安東)

醴泉勞働夜學

慶北醴泉

醴泉郡上里三斗星洞에는十二月上旬부터勞働夜學會가設立되엿다는데主宰者는同洞居住金鉉斗氏라하며氏는現村洞私設學術講習會의敎師로서夜間을利用하야至誠으로勞働者를敎養으로一般이稱讚한다는데現在會員이約三十名이라더라(醴泉)

善地主石碑造成

全北

井邑郡瓮林面五柳里宋元圭氏는昨春以來로同面貧民의戶稅負擔과秋監印時에도小作人들의願에依하야小作料를決定하엿슬뿐더러及其收捧時에도他地主들은擧皆一石에二百斤以上을밧는데氏는普通一百八十斤以內로秤捧한외닭에該附近人士들이氏의慈善에感하야木碑가五個所에立하엿고또該附近發東、泰仁、七寶、甕岩四面內에居住하는小作人一百五十餘名이氏의恩惠를不忘키爲하야方今石碑를造成中이라더라(井邑)

◇寸鐵◇

◇【奉天】中國人의骨肉相爭으로漁父의利를供하는것도可笑롭지마는這間에서무엇기는同胞야말로더욱可憐!

◇【金浦】有夫로有子한少婦가自身을百圓에팔어債務를갑고當地에와서울고잇다 이것도現社會相의하나

◇【高原】穀物商組合에서는穀物檢查員赴任勞頭에六十圓의巨大한物質을들여歡迎宴을開催한다나檢查員으로得失相半

地方經濟

昨年度 元山貿易

開港後最高度

元山港大正十四年度貿易은總額二千百三十七萬八千五百九十圓에達하야開港以來新記錄을得하엿다는바內輸移出額은八百十萬七千百九十圓이요輸移入額은千二百九十五萬十四百五十圓이며四萬四千二百十二圓이入超하엿는바即開港以來第一位이던大正八年度의四十七萬二千九十三圓에比하야八十萬六五百三圓이增加되엿고第二位이던大正十三年度의二千二十九萬千九百二十一圓에比하야百六萬六千六百七十五圓이增進하엿슴으로一躍第一位에成績을得하엿다는바出入重要品內容은左와如하다더라(單位圓)

輸入▲米及粟三四、七八一▲小麥二四七九五一四▲魚類二〇一一〇一▲海蔘一九五五〇五▲明太卵一七五〇八▲黑鉛一九三七〇〇▲金鑛一九一五四七▲車輛材一一四二三七▲牛四九八四七三▲肥料一一七〇〇〇▲其他諸品合計八四〇七一九二

輸入▲米一六〇七三三▲小麥粉九▲石油七九三八二三▲粟二八四一三七八九▲砂糖一二七二四▲綿絲四三三五▲綿布二七六一九六四▲毛織物八三四八四▲綿織物三六九二五▲漁類一〇〇〇三六七▲紙類一〇五四二八▲石炭一一九七八九▲灰六八七三〇▲鐵類二九八二二三▲小包郵便四八九七三八▲其他諸品合計一二九五一四〇四(元山)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Tuesday, Jan. 7th, 1926.

LOOKING BACK (1)

(From The Osaka Mainichi.)

The year 1925, full of follies like any other year, is yet deserving of some honour for at least one good deed accomplished, that is expected to prove of lasting benefit directly for the European states, and indirectly for the rest of the world. The Locarno Conference has ended the long and bitter struggles between two eminent Powers, and will, it is hoped, mark the dawn of a new era of peace and prosperity.

England has faced many acute industrial problems, some of which will be carried over to the next year unsolved. Premier Baldwin's policy of tiding over the unsettled situation by a harmonious mutual support of Capital and Labour may mark a new era in the country's progress toward real democracy. The passage of the Irish Boundary Bill must have taken a great load off the mind of the British people.

France made the last heroic attempt to save the country's credit when the leading industrialists jointly declared their readiness to raise a foreign loan of Fr. 10,000,000,000 with all their factories and plants as security. The effect was instantaneous, as it should b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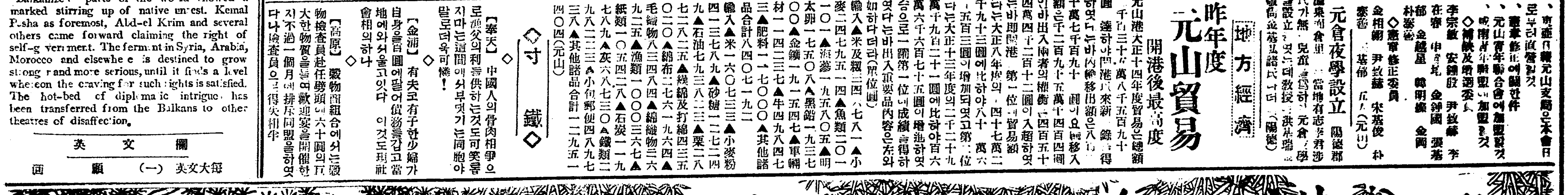
Premier Mussolini has tightened his grip on Italy, and the Black Shirts appear likely to hold their sway over The Boot for some years to come.

After years' of continuous struggle, Germany has at last succeeded in claiming equal rights to join the League of Nations on the same footing as other nations.

While Europe began to breathe more easily, elsewhere it was not necessarily so. The "Balkanized" parts of the world showed a marked stirring up of native unrest. Kemal Pasha as foremost, Abd-el Krim and several others came forward claiming the right of self-government. The ferment in Syria, Arabia, Morocco and elsewhere is destined to grow stronger and more serious, until it finds a level whereon the craving for such rights is satisfied. The hot-bed of diplomatic intrigue has been transferred from the Balkans to other theatres of disaffection.

英 文 欄

每大文英 (一) 顧 回



井邑郡井邑面市基里 執達吏代理 吳在天

井邑郡井邑面市基里 金興工 今用

井邑郡井邑面市基里 齒科醫 新千

井邑郡井邑面市基里 面書記 奎

井邑郡井邑面市基里 長春醫 之

井邑郡井邑面市基里 友恭商會主 李樂三

井邑郡井邑面蓮池里 井邑電氣株式會社 社員一同

井邑驛前 井邑金融組合 幹部一同

井邑郡井邑面蓮池里 前參奉 趙相貴

井邑郡井邑面蓮池里 趙鍾燮

井邑郡井邑面蓮池里 米穀商 韓性重

井邑郡井邑面蓮池里 米穀商 郭道榮

井邑驛前 湖南旅館主 金明瑞

井邑郡井邑面蓮池里 亭布仲介業 金敎順

井邑郡井邑面下茅里 米穀商 金璐述 電話二五

井邑郡井邑面蓮池里 旅人宿 張順五

井邑郡井邑面蓮池里 米穀商 早川末太郎

井邑郡井邑面蓮池里 農隱 金公西

井邑郡井邑面三山里 農隱 金雲瑞

井邑郡井邑面辰山里 徐仁錫

井邑郡井邑面上里 耶蘇敎牧師 朴昶旭

井邑郡井邑面上坪里 井邑面會計 林鍾燦

井邑郡山內面菱橋里 山內面長 劉武烈

井邑郡山內面長錦里 朱榮哲

井邑郡山內面菱橋里 山內面書記 林在圭 書記 申元基 書記 李喜瓘 書記 宋洙泰 書記 劉栽喆

井邑郡山內面斗月里 邊東柱

井邑郡山內面斗月里 農老 金順泓

井邑郡山內面宗 里 旅人宿 李栽植

井邑郡山內面沐浴里 區長 柳 植

井邑郡山內面沐浴里 山隱 金 瑞

井邑郡山外面平 里 山外面長 金成植 會計 張 奐 庶務 朴榮柱 財務 金 九 勸業 金炯坤 戶籍 宋主燮

井邑郡所聲面普化里 面務所職員一同

井邑面所聲面普化里 農隱 李達成

井邑郡所聲面艾堂里 紳士 金百鉉

井邑郡所聲面艾堂里 有志 金在龍

井邑郡所聲面萬壽里 雜貨商 崔 載完

平原郡石岩 洪在福

平原郡永柔面漁隱里 金完基

永柔公立普通學校

平原郡 肅川面長 兪鎭洙

平原郡 京義線漁波驛前 玄米業 田元三

平原郡 永柔面長 金錫龍

平原郡 京義線漁波驛前 運送部

平原郡永柔面漁隱里 元柳果園 李 治魯

平原郡青山面葛院市 金潤參

平原郡永柔面華林里 白圭復

平原邑內 司法代書人 高炳濬

平原邑內 朴碩鍊

平原邑內 鄭世章

平原郡永柔面元柳里 金相濂

高敞郡廳 職員一同

平北龜城邑內 龜城醫院 道評議會員 李益鉅

隧道中에避身한 朝鮮人을包圍攻擊!

미친듯이날뛰는자경단과경관대의 잔혹한행동에동포는폭탄으로응전

三重縣下亂鬪慘劇의眞相

지난삼일밤 일본삼중현 목본뎡(三重縣木本町)에잇는 명치좌(明治座)에서 조선사람과 일본사람사이에 다툼이시작되야 큰싸홈이 이러낫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그자세한내용을 드르면 조선사람 세명이 활동사진을구경하는데 다른조선사람이 와서 권에구경온 사람을 차저달라고하엿스나 명치좌주인인

강긔여시(岡崎與市)는 잘차저주지 아니함으로 싸홈이되자 그집에식객(食客)으로 잇는일본인두명이 몰여달려들어 단도로 조선사람의가슴을 일곱군데나 찔럿슴으로 싸홈은더욱커지매 목본경찰서에서 출동한순사가 가해자를검속한 결과에서는 가해자를 즉시내여노앗슴으로 그이튼날 길거리에서 피해자측인 조선사람과 가해자인일인이 다시맛나매 지난밤의분이 다시복바치여 싸홈이되엿든바 부근일본인은 때를 지여가지고 달려드러 수업은조선인을 구타하매 조선사람측에서도

오십여명 이응원을하야 「몽둥이」총, 일본도, 죽창(竹槍)등을가지고 일대란투가시작하엿든것이다 그런데 목본뎡에 잇는일본자경단(自警團)은 조선인 리긔덕(李奇德)외한명을 잡아다가 친천뎡(親川町)길거리에서 때려죽여 이것을 본 조선사람은 권누수도(隧道)로 쫏기여들어가자 경관대(警官隊)는 『런넬』을둘러싸고 양편 입구(入口)를 봉쇄하야 사흘밤을지낫는데 나흘되는아츰에 이르러서도

조선인측 에서는폭발탄을던지여 폭성이끈치지 안앗스며 사일오전 아홉시경에 이르러서도 목본뎡과 유중촌(有中村)방면에 숨어잇는 조선사람을 검속하는일편 목본서관내의 각주재소와 미추서(尾鷲署) 신궁서(神宮署)등으로부터 응원온 동한배궁여명의 경관은 런넬안에 잇는조선사람을 속속 검거중인바 조선사람 여러개는쫏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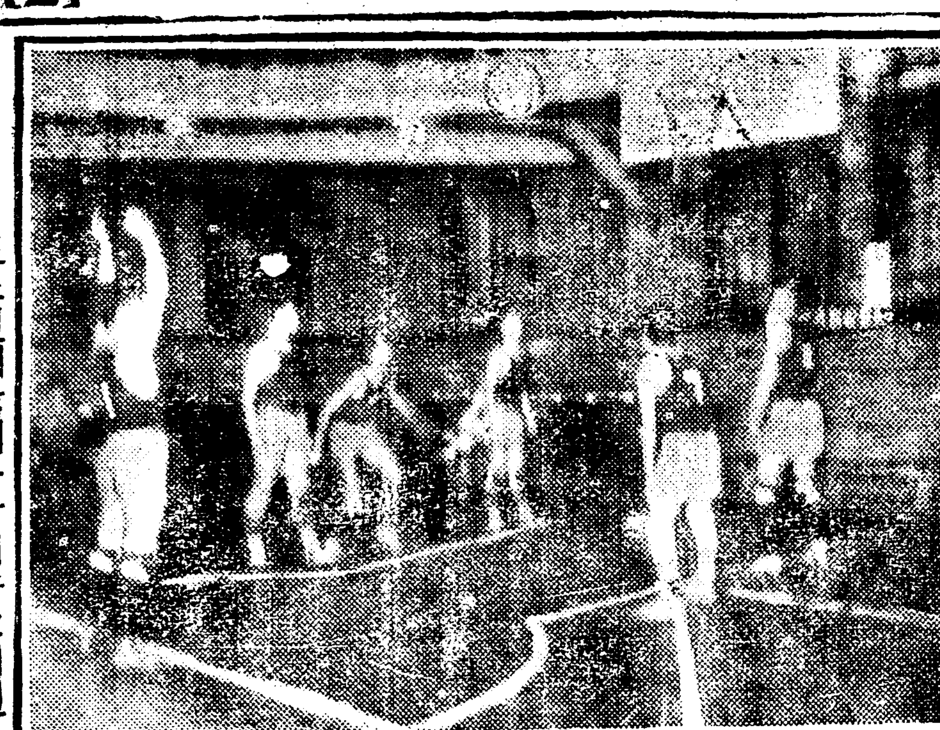
산중으로 도망을 치고 『런넬』가운데 나문사람은 네명밧게업는것을 테포하야 공회당에수용하얏스며 그간테포된 사람은 전후 여덜명으로 목본서 민으로 더욱긔세를놉히여가지고 테포된사람까지 죽이려함으로 테포된조선사람들은 순양함(巡洋艦)으로보내여 케던 실고 신궁(神宮)으로보내여 케던분서(鵜殿分署)에 수용하엿다후 취조중인데 쌍방의 사상자가 만흔모양이라더라

中國兵의橫暴로 在滿同胞不安

徵發、掠奪이無所不至

변변치못하든살림살이나마 불고쓸은듯이업서지고말어

곽송령(郭松齡)장군은생금총살을당하고 패장군은 산해관(山海關)방면으로 몰려갓다하며 봉텬성내(奉天省內)에까지 장문을 드리든듯 늘울리든 대포소리도 은허젓슴으로 전국은확실히 종막되엿슴을밋고 피난중에잇든 동포들은 각각자긔의거주디로 도라가기로 눈이멀어압흘 보는 늙은이와발이얼어것지못하는 어린이를붓들고 업고울며불며 불이야불이야 집이라고돌아가본즉 변변치못한 살림살이나마 의복이나 침구나가구나할것업시 전부도적을마첫스며 심지어 먹다가남은쌀되와 콩날맛까지 를볏집단속에 무더두고왓섯는데 말을먹엿는지 실어갓는지 모도다업서젓고 녀자들이 부억에나려가서 밥을



사진은 조도뎐대학대중앙긔독교청년회 빠스켓쏠데일회전의광경!

행인의몸 을함부로수색하고 금전을강탈하는등 그폐해가 가장심하든중 지난이십칠일 오후네시경에는 북릉(北陵)사는박정원(朴庭元)씨가 시내에들어와 가마니를 팔아가지고 이삼인이 작반하야 도라가는길에 군인사오명을 맛나 수색을 당하야 귀와박씨는 돈을아니주겟다고 하다가 바른편다리에 총을마저 이주일이상치료할중상을

당하엿다 하며일행중에 숫중국돈 십여원 빼앗겻다한다 각처에서 이러한 위험한소문이 들릴뿐아니라 압으로는 곽군의잔당 위익삼(魏益三)씨지휘하에 산해관에집중되야 재거를 준비한다느니 북으로는 각조쇄 미장도(昌島)가 반봉거병을하는데 이로풍군(豐軍)과 곽군의패잔당을 약수하기로 산해관에 사절(使節)을 파견하엿느니하야

피난동포 들은더욱몹씨 공포를 늣기는동시에 아직도 거주디로 귀환치못하고 서탑(西塔)과 십간방(十間房)등디에 머물러잇는사람이 만타더라(봉텬)

지으려하나 솟은고사하고 바가지나 부지깽이한개도 볼수업고 방이라는것은 창문이 덩덩이뚤어저서 모진설한폭풍이 거칠업시 잇는그들에게 거처에가귀신의굴속에서 살겟다고우틀수를하는것 집이생기는 비참참혹한 디경에 이르럿다 그러나압흐로나 다시후환이나업섯스면 다행이겟는데 군인이 사방에날려잇서 그전보다도 더욱 심하다한다 우리동포에도 괴탄이 시 부상자를 메여달라는니시데 명에부터클라는니

왜래하는 때그속에들어 ...

元山靴工爭議續報

공장주는사과지하나 직공은여전히강경할뿐

원산부남촌동(元山府南村洞) 원창양화점(元昌洋靴店)주인 조성희(趙聖禧)가 직공 최경준(崔景俊)을 리해고한후 구타까지하야 양화직공조합(洋靴職工組合)에서 세가지를 요구하고 지난이일 오후여섯시에 회답을요구하엿다함은 긔보한바와갓거니와 그후경과를 듯건대 공장주는 이에답하겟다고하고서 회답이업슴으로 직공조합에서는 그공장에잇는직공을 다른공장으로소개하야 전부나오게하엿다는데 이에대하야 직공조합장 김길남(金吉男)씨는 다음과가티말하더라

공장주의 완강한태도로 인하야 서윤근(徐允根)등은 이일밤으로 즉시 그양화뎜으로부터 나왓는데 최경준(崔景俊)의대신으로 들어간 김학수(金學洙)만은 우리의소개로 다른양화뎜으로 월급을 더밧고가기로하엿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오지안코 그대로잇슴니다 김학수의말을들으면 주인의협박으로 못나온다하는바 종시나오지안흐면 적극뎍 행동을취하겟슴니다

工場主의辯明

어름어름할뿐

이에대하야 공장주조성희는 서윤근이가 아즉나오지 안엇다고 어물어물하며 김학수에게 협박도하지안엇다고 보호의 말하며 사실을숨기기에 매우급급하더라

畢竟謝罪乃已

직공측은아즉도 태도가강경하다

공장주측에서 화공조합의 요구에불응하엿다함은 방향보도와갓거니와 조성희는 자긔의 잘못을 깨닷고 지난사일밤에 화공조합사무실에와서 조합장 김길남씨에게 사죄를하고 요구조건중의한아인 치료비만 자긔가부담하겟다고 하엿다는바 조합측에서는 세가지를 전부응하지안흐면 어듸까지든지 대항하야 싸호겟다고 강경한태도를취한다더라(원산)

慈恩面爭議 檢擧者四十名

警官과格鬪한結果로

중경상자도사십여명의다수 / 집달리는차압을마치고귀환 / 記者는警備船에서監禁

전남도무안군자은면(全南務安郡慈恩面) 소작쟁의(小作爭議)는 날이갈사록 더욱험악화하는바 경찰측에서는 소작조합간부(幹部)와 회원사십여명을 검속하야 현장에는 일대격투가 일어나 중경상자사십여명을 내이고 외부와교통을 차단한후 신문긔자(新聞記者)는 경비선(警備船)에감금하고 집달리(執達吏)는 네대로난호어 한대에경관삼십명식부처 소작인의가산을 차압(差押)하여가지고 오일오후네시에 일부는목포로 도라왓다더라(목포뎐보)

日鮮融和 標榜한 發會式場이修羅場

대판에서생긴선우회 발회식을하다가야단

대판(大阪)에서 수년전부터 『일선융화』를 부르짓든 리선홍(李善洪)은 최근에와서 신병으로 얼마동안 침묵을계속하다가 건강이 회복됨을말하 다시그부하를 인솔하야 일반로동계급을대상으로하야 일월삼일에 소위내선융화를 긔초로한 선우회발회식을 대판축항대조탕(大阪築港大潮湯)자상에서 성대히거행하엿다는데 청중 오백여명 과각신문사후원

원 이잇섯고 일즉부터 선우회를조직하겟다는구실로서 각유산계급과 각경찰서와 기타관공서를차자다니면서 긔부금을바드며 또한일반로동자들에게는 수일전부터 선우회발회식은 일대발표하지도안코 『세다』에는 활동사진、기생연주、술、벤도등을 난호어준다는 신년연회라는명목으로 회비는일원식이라고 하여서 선전을하엿다는데

그내용을 자세히알지도 못하는 로동자들은 여러곳으로부터 각각회비일원식을 가지고 장내로쇄도하야 오백여명이라는 엄청난수에이르럿다하며 이런선돌은 각사회운동단톄 조선인련맹(朝鮮人聯盟)의 윤혁제(尹赫濟)、황씨와 세계약소민족련맹(世界弱少民族聯盟)의 고제군(高濟君)、김종명(金鍾鳴)씨등이 장내에들어가서 일 아무조건하고

일선융화 라는내용을드러 설명이 잇자 경관은 즉시 정회를시키고 다려가고 청중들은 그설명에 매우호감하야 장내가커서 일시에 그혼마들이 라채고 크게분개하야 총재리선홍(總裁李善洪)을 구타하며 자리를품을 파괴할작에 림시회장으로 단상에 섯든 리춘식(李春植)은 즉석에서 회장을 사직하고 장내에는 대혼란이 일대소동을 일우는동시에 경관은 해산을명하야

주모자들 을잡고내여보낸 동시에 회비일원식을 반환하라는 동의 구실로서 싸홈을 밧그로내여쫏는 동시에 청중은 밧그로내여쫏는동시에 총재리선홍외 수명은 축항경찰서(築港警察署)로검거하엿다더라(대판특신)

儆新學校 聯合救濟會

빈민에게좁쌀 나누어 구제하엿다고

시외 독도면(纛島面) 일대주민이 지난여름의 대홍수로 가장큰피해를 모다 류실하야 못살디경에 이르럿슴은 누구나다 아는바이지마는 이소식이전파되자 각사회단톄로부터 드나드는 동정의 금품은 매일답지하야 그들의가련한생활에 막대한 도음이 되다는데 요지음또다시 동면자마장리(字馬場里)에는 『세부단스』청년부인회에서 구제대가나와서 의복팔십건과 이불스물다섯벌을 분배하얏스며 또경신학교(儆新學校)에서 위치를 둔 련합구제회에서는 과실(果實)일백오십주머니와 현금사십원을 분배하얏다는데 동구제회에서는 팔십육호삼백팔십여명에게 매일 매인에게 좁쌀(粟)한홉삼작식주어 과동구제하야 그들의 고마움에 호송고흘마지아니한다더라(고양)

少婦打殺의 嫌疑者는그媤父

본래정신병이잇든자인바 사람못할짓을한모양이다

의주군위화면상단동(義州郡威化面上端洞)일백팔십번디 박사직(朴思直)의며느리 리씨(李氏)가 지난달이십일 오후일곱시경에 자긔시부 박사직과가티 고성면신도리칠통칠호의이번디(同郡古城面在島洞新島里七統七戶之二)에서 자다가 엇던자에게 피살되엇든바 이재리씨의죽은원인을 탐문하건대 그날가족 다섯사람이 그곳에 타작을하려갓다가 세사람은 상오 동집으로도라가고

두사람은 그이튼날가고 자 농막에서자든중 그런한일이 생겻는바 방금 신의주경찰서에서는 취됴하는중이라는데 박사직은 본래정신병이 잇든자인바 피해자에게 무슨사람으로 하지못할짓을하고자하다가 그와가티 죽인것이라는 진설이 잇슬뿐아니라

박사직의 등거리와바지에 피가 무든것이 잇섯다는것과 그엽헤도 집이잇슴에 불구하고 심리나되는 자긔집에가서도 죽엇다고는 하지안코 도려이들엇다고하는것과 집안에잇든 칼은부억에 감추엇는데 자루와날에는 피가무덧섯다는 것으로보아 박사직의 행위 이분명한듯 하다더라

初飛行中墜落

일본천긔에서

일본 천긔(川崎)조선소각무원(各務原)비행장에서는 지난오일아츰일시경부터 비행(初飛行)을하는과고 일등비행사 국지실(菊地實)은 석창(石倉)씨가동승하고 기부(岐阜)의장공을 선회(旋回)하든동중 동오시사십분경 장량교(長良橋一町下手)에서 돌연히 발동기에 고장이생기여 급히 언덕에 착륙코저하엿스나 잘못되여 오십미돌(米突)의상공에서 추락하야 압면이 거의파괴되고 국지씨는 중상을 당하엿스며 비행긔는소파 청년(消防靑年)들이 달려어 내는중이더라(기부뎐보)

蔚山牛車盟罷事件

하주의서약으로해결

경남울산(慶南蔚山)우차조합(牛車組合)에서 동맹파업을단행하엿다함은 이미보도하엿거니와 그후하주(荷主)측의 약정서(約定書)로말미암어 일부는해결되엿다는바 그것은 우차사용자로조합에 가입치안코 조합규약이외에 커다란임금으로 부당한하물을 맛는자와 부산(釜山)에잇는 일인부호 대지(大池)가 경영하는 산중회조부(山中回漕部)의 화물자동차가 넘우저렴한 임금으로 화물운반을 취급하야 조선사람우차주에게 타격을 주는외닭으로 그러한것이라는데 하주측의 약정서내용은 그들에게하등불리지안켓다는 됴건으로된것이라더라(울산)

列車轢人

피해자생명위독

지난사일오전일곱시 에함흥역(咸興驛)에서 약한마일 되는 디뎜에서 청년한명이 긔차에치여 머리가깨여져 인사불성이되엿슴을 즉시 함흥자혜의원(咸興慈惠醫院)에입원치료중인데 생명이 위독하다더라(함흥)

小兒殺害犯 蹤跡杳然

범인은알수업서 東大門署焦燥

작년십이월초생에 시외 청계천(淸溪川)부근에서 소아참살사건이 발생한이래 동대문서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알기위하야 관내는 물론기타 유력한디방에까지 수사대를파견하야 수사에 노력하얏스나 아모 어듸에업시 모든것이 수포에도라가고 마럿는데 얼마전에 모방면으로부터 유력한 혐의자세명을 검거하야 엄중한 취됴를 하얏는바 그역시 아모 증거가업서 모다방송하고 진상은 점점오리무중으로 드러가 그소아의원수조차 알길이막연하여젓다더라

饑寒으로 凍死

이촌동리재민 여러날동안을굶고

시외 이촌동(二村洞) 데일텰교(第一鐵橋) 부근에 토굴을파고잇든 안태준(安泰俊)은 여러날동안을 계속하야 주린가운대에 추위를견대지못하야 지난오일밤 여덜시경에 어러죽엇는데 시테는경성부로넘기엿다더라

휘파람

▲의주(義州)에는신년두에도 소주에취한일인들이 길거리로도라다니며 고래소리를제마음대로해부첫다▲어느날새골못에서는 경관들이『허오리』멜키입고 울각신을신고 도소주에취한김에 열십자(十字)거리에서 갈지자(之字)걸음을하며▲순사한분이 평상시는 그번 죽어도아유만함을밧듯 순사나장이대하야 이놈들이『라고하얏다▲술이취하야 한참조흔김에 짓거리한다는것도 나오는말이 쏜다는것이다 그들이 노하얏슬때에야? 이것이국경순사의본색?

滿洲踏査 (八)

李涵

十月二十三日은日氣가따듯하고 하늘에는구름한뎜업다 우리두사람은아츰밥을든든히 먹고 신발을단단히하고 小亮子溝에서東北으로 六十里되는興隆鎭(영어黃家燒鍋)으로步行하기시작하엿다 周圍數十里는大野中間으로뚤닌길로발써 계거럿다 鏡面가든들에穀稙은 볏가리박엿는데 中國人의집은 二三里에한아식잇다 朝鮮內地가트면 여러千戶여러家가櫛比하게 살터인데 이러케 드믈게이곳집들은 변변치못한 土地賣人稱한古代狀態、現實하게보는듯하다 午前七時에稻稗하고七時間만에 興隆鎭에到着하얏다 同胞二十一戶가 田晌(一晌一千四百坪)、耕種하엿는데 每晌에白米一石(每石四百五十斤)식收穫한다하야 三年前에 金俊泉 宋德元 趙鳳均諸氏가 拓한바이라한다 此地는同胞 賓縣所管인데 賓州사는同胞끼리 外가지合하야 一個小學校를共同으로維持하며 學校費로昨年에는每晌에大洋一元식내엿고 今年에는 元식내기로하엿다하며 그學校는여긔서東北으로 十里되는 同賓縣東柳樹河(離縣八里)에두고 此處 幼稚院을두엇는데 院은金俊泉氏오 敎師는金宇植氏 院監은金成烈氏오 兒童은二十名이다 社會方面으로는權花靑年會가잇서서 修養에힘쓰며 夏間에는夜學들을하는데 靑年이數十名이며 飮酒와雜技를嚴禁하야 風紀가肅正하다

村에서東으로二里許에잇는 興隆鎭街는百餘戶밧게안되는小市街인데 再昨年에馬賊黨三百餘名이襲來하는것을 賓州同賓兩縣의駐防隊軍이合力하야擊退하엿다한다 周圍가百里나되는大野의中間에 村落을成하엿슴으로 容易하게 侵入할수가업게되엿다 此林을依據하야잇는馬賊은 容易 此處에사는 同胞들은單純히 水田作農만하고 旱田에各穀을심으지안는것이 遺憾이라고 明年부터는 旱田을조금만하는것이엇더하냐고勸告하엿다 또는小川을 利用하엿기때문에 水田만은百晌以上을할수가업다하니 住戶가現在以上더살수가업는것인즉 永遠한將來에 無限한希望을가지고 어느地點에던지 幾百幾千戶식떼떼들어박혀야될것이다 어려케되면은 을미리하고 旱田을主農으로 水田을副業으로하야 大村落을이루도록하는것이 조흘가한다

家屋들은 지은것은모다 크지아니하야 二三間식에지내지못하나 아주알뜰하야 보기에떡자미가잇는듯하다 그리고 幼稚院에서 노래하고 글배우고 遊戲하고 뛰며노는 어린아이들을볼때에 말할수업는感想이 胸 쳐른다 松花江에허덥처서 팔푹은 鋼圍하고 大野에다를질하야 다른金源하대고 姿願하는바이다

運動競技

體協氷上競技 十六七日頃에開催

朝鮮體協의第三回氷上競技大會는그申請을五日까지로하고來十六七日頃에는開催할豫定인바아즉어름의形便을보아追後確定發表한다더라

大邱스케잇大會

大邱運動協會스케잇俱樂部主催로時代日報朝鮮三支局後援下에氷上競技大會를開催한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지난四日午後九時부터大邱市外靈仙池에開催되엿바大盛况裡에同四時頃無事히閉會되엇다더라

大每野球團新陣容

大每野球團은湯淺谷澤桝澤의三選手의入社를따라더욱新陣容을이루엇다는데그멤버는다음과갓더라

投手 小野湯淺渡邊▲捕手井川▲一壘森▲二壘橫澤▲三壘内海兄弟▲遊擊 谷澤▲外野 高須 川越 菅井

腰本新監督

大每野球團主將腰本壽氏는今般慶應監督의職權을니어監督으로就任되엿다더라

射擊世界的選手權

米國陸軍第百七聯隊는英國웨스터민스트聯隊로부터射擊世界的選手權挑戰을바더이것을承諾하얏슴으로來年六月에擧行할터이라더라(외성통신)

籠球個人得點表

早稻田大學對中央靑年會第一回籠球戰個人得點은아래와갓더라

早大		前半		靑年		前半	
F	鈴木	5		F	田路鎭	0	1
F	早川		4		金振槃	0	4
	淺野	1			金鍾萬		
C	永木	0	3	F	金永述	0	4
	李相佰	5		C	李惠澤	0	
G	片野	2	4	G	張權	0	0
	富田	6		G	薛福壘	2	
	大庭		1		李圭弘	0	0
G	富岡	2					
	山根		2				
		21	14			2	9

今日

早稻田大學對YMCA籠球最終戰

七日夜七時半鐘路靑年會館에서

主催 中央基督敎靑年會 後援 朝鮮日報社

新年賀謹

娼妓 宋彩鳳

娼妓 朴錦珠

明月館 娼妓 崔山玉

明月館 娼妓 朴桂仙

米穀及貸金業 兄弟商會 朴斗主 朴汶主 高熙晋 電話二七番

全州娼妓 金玉子

朝日料理 明月館 主 韓君三 妻 金君錫 電話二七番通用

明月館 娼妓 李玉花

朝日料理 新成館 主 文雨奎

勞働組合 幹事長 安仁善

海陸物産 委託販賣 客主 金吉順

海陸物産 委託販賣 客主 崔圭成 電話二七番通用

茁浦金融組合 理事 川邊兼雄 電話二五番

全北茁浦港新基町 米穀貿易 仁信商會 主 張萬 電話六番

扶安郡保安面月川里 面協議員 許邦煥

大成理髮館 主 金成權

扶安郡乾光面新里 寫眞師 金鏞洙

扶安保安東洞里 金驥和

扶安茁浦面保安面上林里 尹相烈

扶安郡保安面上林里 姜周元

扶安郡保川面柳川里 李泰秀

001568

車輦館金融組合 理事 片岡榮太郎 書記 桂鉦官 金文京 韓

平北鐵山郡站面 面長 基元 書記 盧承國 洪淳鼎 劉得明 金運浩 金景淡

車輦館 順天醫院 醫士 金益銓

車輦館 忠和醫院 醫師 鄭宗成

車輦館 東濟醫院 醫師 朴利欽

車輦館 支那式燒酒製造販賣業 ㊌永成釀酒商會

車輦館 ㊎兄弟自轉車商會 金大韻 金大學

車輦館 繩叺筵 料古麻袋 李信學

車輦館 繩叺筵 新古麻袋 洪利疇

車輦館 繩叺筵 新古麻袋 金龍源商店

車輦館 綢緞布木商 金酒範

車輦館 綢緞布木 穀物海産 永信商店 金聖圭

本社順天支局 顧問 朴彰緖

寶田面 有志 朴勝奉

朝鮮咸興 帝國炭業株式會社咸興支店

平北江界西門通 同仁醫院 醫師 金志永 電話四七番

平北江界邑內 木材穀物林業 建築請負 鹽特約販賣 チラン代理店 貿易商 德興商會 主 李貞源 崔德星 電話三〇番

車輦館 綢緞布木商 桂恒淳

車輦館 綿布絲布貿易商 崔訓謙

車輦館 雲曙寫眞館 金仁浩 朴應洙

車輦館 穀物貿易商 金官龍

車輦館 古物商 金永琨

車輦館 和田理髮館 趙用福

車輦館 菓子砂器 金伯鴻

車輦館 司法代書人 宋德昊

車輦館 鄭尙浩

天道敎宗理院

和洋雜貨 文房具 洋靴製造 哉一商店 洋靴部 電話三一八番

咸興住吉町 朝鮮料理 迎春館 電話四一四番

咸興郡興南面中里 成海醬油會社 主任 姜容俊

興上精米所 主任 鄭重鏞

朱地面職員一同

興上驛前 朱伊面貿易商會 主任 金鼎禹

晋州紹介

新年地方紹介號發行에臨하야

一

從來한光榮은無限의希望과熱烈의熱情으로迎接하얏든乙丑年을送하고亦是其希望과熱情으로丙寅新年을맛는今日吾人이本地方紹介號를發行함에際하야喜悅의念을禁키難하다

二

本郡은錦繡江山의稱이잇는雄州名城이라飛鳳山、風山이西北으로圍繞하고鶴峯、望晋山이東南으로屏하야菁川、渉川、鹽洞의三大野가東西南三角形으로展하엿는대晋風山(頭流山)智異山、月牙山等諸山脈의分派가起伏逶迤하야重疊히外屏을作하고一帶長江이抱郭東流하야斷岸絶壁은矗石樓를載伏하야嶺南絶勝이요史乘의可考가無하야上古는漠然하나三韓以來로姜民瞻、河拱辰、鄭溫、姜淮伯、姜孟卿、河演、河崙、鄭夢虬、姜淵、鄭弘祚、鄭魯衡等偉人傑士와姜彭瑞、河漢、申霖、河況、俞伯仲等文人才士가繼繼承承하고理學、姜愈、姜安命、余孝、尹思寬、姜女、姜氏、鄭希立妻河氏、鄭希聖妻鄭氏等孝烈이代不絶하야禮儀之鄕이엿스며道德之鄕이엿섯다 뿐아니라伊昔龍蛇之變에衆寡不敵으로비록戰敗는하얏스나郡內士女가無比壯烈이엿슴으로褒烈之鄕으로도著名하엿다伊後兵營이設置된以來로文敎不振의一時之歎이업지아니하엿스나晋州人士의氣魄은毅然躍動하야 農民衡平、少年等三大運動이我晋州의首創이며反宗敎運動女高普私立도亦是晋州에서烽火를擧하니晋州는思想的晋州이며敎育的晋州가아닌가

三

그러나一個言論機關이든慶南日報가其永遠히生命을發揮치못하고中道死滅된은 무엇보다도큰遺憾이되는同時에晋州의큰損失이라한다 如彼한晋州를 널리宣傳하야今日以上의 발신큰晋州가되엿슬것이안인가? 本支局存立이于玆六載이며本報革新과共히吾人支局經營이於焉一年有半載에近하엿스되時事報道로過日하고今日의晋州도오히려紹介치못하야夙夜戰戰하엿스나 一支局의力量으로그특키難하얏든바幸히本社의犧牲的果斷을得하야紙首에本地方紹介號를發行하야써오래동안隱在하엿든晋州一般事情을 널리紹介하게됨은吾人의一實을免함인가한다

그러나이엇지吾人의努力만이리요讀者諸氏의愛顧와地方人士의誠意한賜物이올認함과同時에怏耿이先至한다그는時間關係로紹介가周到치못한點이有할것이며批評이失當된點도多할것임으로외라今般紹介가幸히地方에裨益이되다하면吾人은無上의光榮이될을信하고各部門으로活躍하시는地方人士의健鬪를비노라 (晋州支局)

晋州郡沿革

古代의事蹟은杳然하야知키難하나成安、固城、金海諸郡과共히任那多羅政治의一中心地로서三韓當時에弁韓의一城되과如하고百濟時에至하야一城을築하고名을居列城(一名居陀)이라稱하야居陀의要地로鎭將軍을置하얏다가後新羅文武王이百濟를併呑함에及하야新히州를置하엿다 然而神文王時에至하야居陀州를分하야晋州總管을置하엿더니景德王이康州라改稱하얏다가高麗太祖가更히康州라改하고成宗二年에牧을置하얏다가同十四年에晋州다改稱하야節度使를置하고定海軍이라稱하얏다가顯宗이山海道를廢하고按撫使를置하얏다가後에八牧의一이라하야牧使를置하엿든바李朝太祖가顯妣의內鄕이라하야晋陽大都護府로陞稱하고太宗이다시晋州牧이라稱한바世祖朝에鎭營을置하엿다가再改하야觀察使를置하다가宣祖壬辰兵火로合州營이從蕩됨을因하야矗石城을築한바城이堅固無比함으로觀察使李憕의奏請으로此에兵營을移하고節度使를置하얏다가其後兵使로改하야慶南各郡을統轄케하엿든바日韓合併으로因하야舊城址는幾乎破壞되고廣大하든面積도五面은固城郡에三面을咸安郡에一面을泗川郡에一面을南海郡에二面을昌原郡에七面을河東郡에六面을山淸郡에移屬케되고五十面二百七十五洞里로되얏다가다시二面을泗川郡에移하고咸安郡의三面을得하야面洞里廢合으로十九面百四十八洞里로된後一九二四年四月一日道廳까지釜山에移하고孤城落日의僻鄕이되엿섯다

晋州戶數人口

	戶數	人口
朝鮮人	二一、八五一戶	一一五、八三五人
日本人	八〇六戶	二、七九六人
中國人	一三戶	五三人
歐米人	五戶	八人

農事狀況

本郡의地質은南江의本流中央을貫流하고兩岸은大槪沖積土에屬하며氣候溫暖地味肥沃하야農耕에適當하다耕地面積은畓一萬七百七町六反步田九千三百六十五町六反步計二萬七十三町二反步로農業者戶數는一萬八千九十六戶人口九萬四千九百三十八人이라此로써現在總戶에對比하면人口戶數가共히八割의多數를占하고又農家一戶에對한耕地의比例는畓五反九畝田五反二畝計一町一反一畝에相當하다그리고農業者의內譯을示하면地主五百八十六戶自作農二千五百三十七戶小作農一萬四千九百七十三戶로서地主는總數의三分自作農은一割四分小作農은八割三分이다

排地面積 畓一萬七百七町六反田二萬七十三町二反

林野面積 四萬五千百五十四町步로서全面積六割八分을占하다

財團法人 一新女高

一九二〇年晋州郡智水面勝內里許駿氏가育英事業에七百石收穫하는土地(約七萬圓)寄附가動機로鄭寅永朴在杓其他諸氏가協力하야同年四月一新高等普通學校期成會가組織되야慶南人士의心血을傾注하야五十萬圓의財團을募集하며一九二五年에는開校할作定이엇든바慶南道廳移轉代價의口實下의同校는犧牲되고數年의私立一新女子高等普通學校가出生하여一九二五年四月에開校하고現在學生數는五十四人이며同校校長事務取扱은金致國氏이다

晋州師範學校

一九二三年四月에公立으로設立되야講習科二回와特科一回의卒業生을내엿스며就職은各普通學校敎員이多數이라하며現在生徒는百三十名이며校長은竹田喜久雄氏라한다

晋州高普校

慶南道廳이釜山으로移轉하는同時에그代價의口實로一新高普期成會財團中一部의寄贈을바다一九二五年四月一日에公立으로設立하고一學級五十名으로募集敎授中이며校舍新築에着手하야工事를進行中이요校長은得雄氏라한다

農業學校

一千九百十年에創立되여十三回에卒業生의就職은大槪官吏其他家事가多數이며現在學生百二十人이며校長은今村忠夫氏

第一普通學校

一九〇六年九月에公立으로設立하여十四回의卒業生男子五百二十八名과女子百六十名의多數를내고現在學生數는男子部七百六十五名과女子部三百二十一名이며校長은邑上治氏와敎員十九名이며兒童敎育에熱心努力한다합니다

第二普通學校

一九一〇年四月에姜在淳金元會等諸氏의誠力으로私立鳳陽學校를設立하고多年間維持하며오든바經費의困難으로因하야一九一九年五月八日公立第二普通學校로變更된바現在學生數는四百三十三人이며校長은姜漢鉦氏라한다

私立光林學校

一九〇六年九月에朝鮮耶蘇敎長老會에서濠洲宣敎會의補助를得하야設立된以來尋常科四年高等科二年制이든바一九二四年四月一日高等科를廢止하고新敎育令에依한普通學校制修業年限六個年으로變更하고現在學生數는百五十名이며校長은西洋人安蘭艷氏라한다

柴園女學校

當地基督敎經營인光林校附屬女子部로女宣敎師시넬니氏의熱誠잇는主管으로以來努力中이든바數年前男子部와分離하야女學校로單獨經營케되엿스며設立者시넬니氏의歸國別世를紀念키爲하야校舍를新築하며設備를完實케하엿스며現在學生徒數는百三十名이며敎員은校長外七人이요男女敎員七人으로普校六級制로配定敎授한다합니다

晋州幼稚園

甲子年四月頃當地富年千命玉與吳昺南氏의創設로氏等의犧牲的努力으로多數의兒童을敎育하여오든바經費關係로無限한困難을무릅쓰고晋闘經營하며오는中或은有志者의寄附等으로收集하야維持에努力中이라합니다現在兒童數는百三十餘名에達한다합니다

振明學院

甲子四月에晋城郡介川面玉泉寺와晋州佛敎振興會의經營으로鍾天氏의赴任下에創設되여普通科와高等科二學級으로年齡上又는其他難關으로普通學校入學不能者又는上級學校入學準備生을爲하야多數學生을養成中이라하며同學院責任者諸氏의熱誠努力으로今後發展에盡力中이라하며現在學生徒數는七八十名의達한다하며三人의敎員으로分擔敎授中이라합니다

晋州의宗敎

◇基督敎 布敎所一五、布敎者朝鮮人大日本人一、外國人二、計九、信徒數九〇三人

◇天主敎 布敎所三、布敎者朝鮮人二、信徒數二、六五九人

◇佛敎 布敎所二、布敎者日本人三信徒數一、〇〇〇 寺剎六、僧三三、尼一 計三四人

基督敎幼稚園

一千九百十五年頃에濠洲宣敎師마夫人의創設을爲始하야氏의獻心努力으로設備充實과兒童指導에努力하게되여實로多數朝鮮兒童을擔當하야오든바氏의京城赴任으로리셔夫人이後任으로此를繼하야現今에이르럿다하며現在兒童數는八十餘名이요가氏의嫁母로서趣味잇는掖護、努力中이라합니다

靑年運動

晋州靑年會幹部朴台弘金容浩高長仁朴台俊氏等의熱心努力으로一九二五年十一月十二日晋州靑年會勞働靑年會大谷靑年會大坪山靑年會一班城靑年會等六個團體가모히여晋州郡靑年聯盟이成立되엿다가商業靑年會가參加하고近日創立된女子靑年會도參加하더는中이잇다其成立이日淺하나慶南靑年聯盟을發起하고大衆解放의旗幟下에組織的으로猛烈한그만큼警察當局의嚴酷한現今集會禁止中에呻吟하고잇스나現在會員總數三百人으로內部的生脈이溌溂하다該聯盟의原動力은晋州靑年會이며同會의元動은同會第一回會長朴在杓氏와및金義鎔趙倫濟朴台弘朴台俊成泰晋及其他諸氏의誠心努力과朴在錦鄭贊華諸氏의物質的援助의結晶이라고한다現今諸運動의中心은高景仁朴台弘金基浩姜澤模金永植柳總天金長煥河佑龍金溶吉黃國秀朴英煥鄭炳采

衡平運動

一九二三年四月二十五日姜相鎬申鉉壽千錫九等諸氏의發起로階級打破侮辱的稱號廢止敎育奬勵의標語下에四十萬白丁階級의解放運動이이러낫섯다그後北道가此에共鳴하고入社員總數가九萬三千二十八人이엿다同運動의機關組織으로各道에支社各郡에分社를두게되엿다 그後波瀾이重疊하다가一九二二年七月十五日忠南太田에全鮮大會를開催하고晋州에두엇든總本部를京城에移轉할것을決議하고一九二五年四月二十五日本部를京城에移轉하고現在晋州는慶南支社로慶南의各分社를總括한다慶南의總社員은三萬一百十三人이라더라

少年運動

一九一九年四月姜文錦金敬澤崔致辰等諸少年의發起로三十餘名의同志가모히여晋州少年團을組織하고學術講演討論等을目的하야相當한收穫이잇던바一九二〇年三月一日即三一運動第一回紀念日을期하야某重大計劃을하다가暴露되야嚴酷한取調를밧고同年四月姜文錦君은懲役一年 金敬澤 崔致辰等君은懲役八個月式의體刑을受하엿스며林世君外三人은各懲役八個月의執行猶豫의處分을受하얏스며會錄文書等全部押收를當하야同少年運動은無慘히짓발피엿든바一九二一年十月에『어린날빗곳』이라는團名으로復活하야姜文錦君을團長으로少年運動을繼續하다가一九二四年十月頃에財政難으로姜文錦君의再次處役됨을因하야該運動도統率者를일코現今睡眠狀態에陷하얏스나朝鮮初有의少年運動임을記憶하야둘것이다

商界에模範人 鄭相珍氏

同氏는一八九五年一月二十日晋州郡平安洞에서出生하야畧干의漢文을배우고貧寒한家庭生活에窮迫하야一八八八年부터行商에投身하야晝夜不擇하고隣近市場을往來하면서渡船賃二厘로節約하기爲하야嚴冬氷江을赤身渡涉하야凍氷流血이手足을染한事도多하얏스나조금도志氣를屈치안코北魚行商을하며其父親鄭君五氏의勞働에扶從하다가一八九六年에分商利를得하야其父를하야一方農業에盡力하면서米穀商、魚物商、等業을經營하는中一日一時도倦怠치안코

一貫奮鬪

一年에至하야專田州穀價가五十石에이엇섯는데其全部를郵便局에寄托하고同時에日本人山本의周旋으로北魚貿商에從事하야六百餘圓의巨利를得하고信用과經驗等을利用하야鳥賣商業에着手한結果現今에는十萬圓의財産을가지고商界에雄飛할뿐아니라米穀商良陸地棉栽培에도盡力하엿스며一方에는蠶業傳習所에서附受講習하야蠶白木面에五百反을織造하다가一九二四年부터는該白木織을廢止하고每年明紬百餘匹式을織出하는中이다 氏는孝行이極진하야一九〇六年洞里에서賞外지바든바잇섯다 但氏의缺點이다할것은大勢에通치못한것과抱擁力이不足이라더라

八面으로有功한 朴在杓氏

氏는當年四十歲의壯年으로晋州郡奈洞面三溪里에서出生하야現今同郡晋州面上鳳里에서居生하는바氏는距今十七年에市內에入하야朝鮮人木手로셔부터鮮和折衷式의今慶南館 層瓦屋을宏壯히建築하고낫다 驅逐되는朝鮮人事業을爲하야努力하야보라는決心으로前記建築材木을利用하야其翌年(辛亥)에材木店을經營하면서男鋸匠能率을하야木工組合、土工組合을組織하고又其翌年(壬子)에閑散勞働者組合을組織하야四百餘人의

組合員을

統率하고勞働技術器具改良及賃金增進을目的하고當時最低賃金四十錢하든것을六十錢으로增額하며其材木과組合員으로家屋建築請負及治道工事請負等에從事하야家屋의改良에도만흔貢獻을示하엿스나勞働者의自覺이不足한과請負工事가不足하야一九一〇年十月頃에該組合의解散과共히該材木店도廢業하엿스며一九一八年晋州靑年有志와協力하야晋州靑年俱樂部를創立하고一九一九年七月十日慶南靑年會光州體育部等과合同하야

晋州靑年

會로變更하야今日靑年運動의土臺가되게하얏스며同年四月咸泰晋、趙鍾來、南洪、金義鎔等諸氏와協力하야朝鮮勞働大會慶南支會를創立하얏다가一九二二年에有耶無耶中에업서젓스나其後晋州勞働運動도만히助力하얏스며獨撤的으로第一普通學校附屬婦人夜學校를設置하야婦人啓蒙에도努力하얏스며第一夜學會及第二夜學策精學院等에도不少한助力을하얏스며私立一新女高普前身인一新高普期成發起者의一人으로同校期成에도만흔努力이잇는等入力으로活躍하야誠力과物質을相當히費한氏는挽近二三年間隱退靜養中이라는대氏의缺點은너무圓滿한데흐르는것이라하겟더라

益山 囑望하는養蠶 朴魯順氏의着手

益山郡五山面南田里朴魯順은本是群山農業學校와水原農林學校를修業한터로서群山公立普通學校에奉職中이엇스나恒常養蠶에留意하야自己가住居하는南田里附近에五反步의桑園을大正十三年度부터栽培하엿든바今春에일으러서어지간히成績이되엿슴으로斷然히本職을辭退하고養蠶設備에着手하게되엿는대元來이方面에相當한知識을가춘터임으로앞으로도이地方養蠶界의指針이될줄로미리囑望하는바이만터라 (裡里)

謹賀新年

井邑郡山外面平沙里 公普校長 林田、保 敎師 治張煥

井邑郡山外面花竹里 農醫 李埈珪

井邑郡山外面花竹里 旅人宿 李聖求

井邑山外面貞良里 武城書院掌議 宋榮祚

井邑郡山外面東谷里 市醫 朴程來

井邑郡山外面五公里 農醫 金斗鉉

井邑郡七寶面武城里 武城書院代表 金麟基

井邑郡七寶面磐谷里 七寶面長 金東柱

井邑郡七寶面磐谷里 山隱 崔煥豐

井邑郡七寶面磐谷里 山隱 金鉀述

井邑郡七寶面臥牛里 務本家 崔仁植

井邑郡七寶面臨牛里 七寶面會計員 宋滄

井邑郡七寶面白岩里 七寶面書記 金煥采

井邑郡七寶面詩山里 七寶面書記 李八東

井邑郡七寶面白岩里 農隱 金俊明

井邑郡甕林面五柳里 有志 宋元圭

井邑郡甕林面泰西里 甕林面長 李台應

井邑郡甕林面梅溪里 老農家 李文洪

井邑郡甕林面泰南里 有志 崔吉龍

井邑郡甕林面泰南里 旅人宿 丁龍安

井邑郡北面新平里 北面面長 柳然洪

井邑郡北面新平里 永春醫院 朴敬道

井邑郡山外面伏興里 有志 李潤德

井邑郡山外面伏興里 農醫 李□錫

井邑郡山外面新平里 老農家 永合

井邑郡九龍里 農醫 □南

井邑郡廳一同

井邑郡井邑面長明里 農醫 金箕南

井邑郡井邑面長明里 農醫 朴鍾奎

井邑郡井邑面長明里 鄕校總務 吳學根

井邑郡井邑面長明里 學父兄會長 朴碩奎

井邑郡井邑面長明里 井邑靑年會委員長 鄭泰浩

全北井邑本町 井邑洋靴店 趙鎭錫

全北井邑本町 井邑印刷所 金晞炳

井邑郡井邑面長明里 楚山金鋪主 朴來弼

井邑郡井邑面長明里 道評議員 殷成河

井邑郡井邑面 執達吏代理 申命雨

井邑警察署一同

井邑郡井邑面長明里 井邑靑年會執行委員 金會珍

井邑郡井邑面長明里 農醫 朴寅奎

井邑郡井邑面長明里 理髮所 崔相佑

井邑郡井邑面長明里 共成屋漂泊所 任文鎬

井邑郡井邑面水城里 フスマ新調 張替類掛軸 金銀扇風美術 表裝一式 具師 金庚燮

井邑郡井邑面水城里 井邑雜貨 光盛堂 梁公允商店

井邑郡井邑面水城里 井邑公立農業學校 職員一同

井邑郡井邑面水城里 寫眞師 高橋萬幹

井邑郡井邑面水城里 司法代書人 方珪守 補助者 金洛天

井邑郡井邑面水城里 農醫 李在南

井邑郡井邑面水城里 執達吏 牛場

湖南線井邑本町 各種洋服製調 附屬品販賣 東華洋服店 許潤

井邑郡內藏面內藏寺 住持 白鶴鳴 候補 金東洙

井邑郡內藏面葵明里 柳庠三

井邑郡內藏面葵明里 內藏面長 金鍾永

井邑郡內藏面松山里 前參奉 李世憲

井邑郡校岩里 農醫 洪在禧

井邑郡內藏面龍山里 山隱 孫敬召

井邑郡內藏面龍山里 農隱 孫聖晧

井邑郡笠岩面接共里 文定鉉

井邑郡笠岩面川原里 笠岩公普校長 八木富太郎 敎師 柳德烈 敎師 殷汝基 敎師 金粲植

井邑郡笠岩面接芝里 普天敎小雪方 文仁宅

井邑郡接芝里 日鮮雜貨並ニ金物類 藤本商店

井邑郡笠岩面接芝里 白南墢

井邑郡梨坪面富良里 農隱 朴文京

井邑郡梨坪面八仙里 實業家 李喜灝

井邑郡梨坪面下松里 農隱 金炳允

井邑郡梨坪面馬項里 徐華錫

井邑郡永元面豊月里 窪田農場 金鍾喆

井邑郡古阜面事務所 職員一同

井邑郡永元面雙城里 實業家 曺秉瑢

井邑郡永元面隱仙里 實業家 全用祿

井邑郡永元面雲龍里 實業家 羅鴻均

井邑郡永元面雲鶴里 林□福

井邑郡永元面雙成里 □□準

井邑郡永元面雙成里 □秉燮

井邑郡古阜面官淸里 東拓駐在所主任 宮本友喜

井邑郡古阜面事務所 面長 殷璿漢 書記 殷賢基 書記 高東潤 書記 殷成設 書記 殷景來 書記 殷俊甲 書記 殷庠午 書記 殷浣約

井邑郡古阜面 古阜水利組合

井邑郡古阜里 古阜公普校長 大原正次

井邑郡古阜面江古里 慈善家 南宮德洪

井邑郡古阜面新興里 務本家 許白述

井邑郡古阜面南福里 慈善家 殷成雨

井邑郡古阜面南福里 殷致石

井邑郡古阜面南福里 前參奉 殷成鳳

井邑郡古阜面官淸里 有志 沈榮澤

井邑郡古阜面官淸里 有志 趙相元

井邑郡古阜面官淸里 朴東鎬

井邑郡古阜面古阜里 殷東吉

井邑郡古阜面古阜里 靑年會幹部 殷海涌

井邑郡古阜面長文里 金秉勳

井邑郡古阜面萬化里 有志 李相淳

井邑郡雨順面南山里 雨順面長 韓文敎

井邑郡雨順面長富里 許向三

井邑郡北面新泰仁 蠶業專習所主 韓正國

井邑郡笠岩面芝仙里 有志 李白述

井邑郡笠岩面大興里 黃瓦工場 主 慶愚顯

扶安郡保安面月川里 許邦煥

扶安郡保安面富谷里 實業家 許判先

扶安郡舟山面小丹里 實業家 朴炳善

扶安郡扶寧面新興里 扶安鄕校掌議 金日載

扶安郡白山面新平里 朴東洙

扶安郡白山面新坪里 柳煥記

井邑郡德川面事務所 面長 金炳啓 書記 金基鎭 書記 朴炳旋 書記 崔錠烈 書記 李起俊 書記 金鎭烈

井邑郡德川面優德里 有志 宋圭錫

井邑郡德川面優德里 德川公普職員一同

井邑郡德川面優德里 務本家 崔載庸

井邑郡德川面優德里 務本家 宋榮郁

井邑郡德川面達川里 務本家 柳判祚

井邑郡德川面達川里 李熺洙

井邑郡梨坪面 面事務所職員一同

井邑郡梨坪面檜東里 農隱 金映浩

井邑郡梨坪面斗田里 紳士 元稷常

井邑郡梨坪面斗田里 務本家 朴聖九

井邑郡梨坪面道溪里 實業家 金宅俊

井邑郡梨坪面斗池里 有志 殷銀基

全北井邑本町 綢緞布木太 絹組販賣 豊盈社綢組部 主任 安孝日

井邑郡井邑面水城里 共愛堂醫科醫師 金鍾昊

井邑郡井邑面水城里 辯護士事務員 嚴箕燮

井邑郡井邑面長明里 井邑面長 朴興奎

井邑郡井邑面水城里 醫學生 黃台顯

井邑郡井邑面水城里 司法代書人 金鎭兌

井邑郡井邑面水城里 大興洋服店主 金鎭述

井邑郡井邑面水城里 農隱 洪成模

井邑郡井邑面水城里虎列所前 司法代書人 李潤燮

井邑郡井邑面水城里 農隱 金永哲

井邑郡井邑面水城里 衡平社 井邑社員 張斗元

井邑郡井邑面水城里 旅人宿 金敬國

湖南線井邑本町 永興洋服店 李漢錫

井邑郡井邑面水城里 司法代書人 金東璣

井邑郡井邑面水城里 執達吏代理 日高金市

井邑郡井邑面水城里 司法代書人 殷南燮

井邑郡井邑面水城里 朝鮮織會社主任 丁漢歡

井邑郡井邑面水城里 辯護士事務員 林東奎

井邑郡井邑面水城里 司法代書人 李元昌

井邑郡井邑面水城里 司法代書人 徐圭善

井邑郡井邑面水城里 司法代書人 殷熙相

井邑郡井邑面水城里 司法代書人 宋士弘

井邑郡井邑面水城里 永昌旅館 鄭基郁

井邑郡井邑面水城里 農隱 金致燮

井邑郡井邑面水城里 旅人宿 柳瀅圭

井邑郡井邑面水城里 司法代書人 李潤泰

井邑郡井邑面水城里 司法代書人 崔彰煥

井邑郡井邑面水城里 辯護士事務員 邊鹽燮

井邑郡井邑面水城里 料理屋 高□熹

井邑郡井邑面水城里 成平旅館 姜鳳秀

井邑郡井邑面市基里 市醫 李性宥

井邑郡井邑面市基里 便利靴製造ゴム靴都散賣 南昌商會 金泰文

井邑郡井邑面市基里 三和堂乾材局 金永基

井邑郡井邑面市基里 大昌堂藥房 金大述

井邑郡井邑面市基里 各色染料原料 鮮一洋行 主 白鳳祺

井邑郡井邑面市基里 湖南洋服店 車治局

井邑郡井邑面市基里 楚城金融組合職員一同

井邑郡井邑面市基里 執達吏代理 李斗銘